

水原府

수원 고적 답사



지도 교수님: 하현강 교수님.

<수원부의 옛지도>

연세대학교

사학회

1984. 11. 18

* 일 답사를 마련하며

안녕 하십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항상 대하는 얼굴이지만, 스쳐 지날 수 없는 우리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곳은 역사의 여러 현장중에서도 조선후기의 약동기인 正祖代에 화산능과 화성의 설치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을, 특히 實學에 주목하여 살펴봄으로써,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믿음에서 水原城으로 정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절, 왕의 무덤들, 꽤나 긴 土城..... 이런 식의 現象的 사실에서 탈피하여 조상의 체취를 흠뻑 느껴 봅시다. 닫힌 가슴을 활짝 열고, 역사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더봄으로써 선열들의 끝가지 많은 열과 접해봅시다.

차가운 날씨이지만 선후배가 어우러져 먹는 밥은 무척이나 따듯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힘써 주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벗님들께 감사드립니다. 秋夕답사가 아니라 冬夕답사로 되어 버린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끝으로, 다소 몸이 쑤시더라도 내일 지각, 결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984. 11. 18.

답사준비위원 일동

* 日程

- | | |
|----------------------|------------------|
| · 08:30 - 지하철 신촌역 출발 | · 13:40 - 용건능 출발 |
| · 10:05 - 수원역 도착 | · 14:40 - 수원성 도착 |
| · 11:10 - 용주사 도착 | · 17:00 - 수원역 출발 |
| · 12:10 - 용건능 도착 | · 18:05 - 학교 도착 |
| · 12:40 - 점심 식사 | |

< 수원역의 연혁 >

역사상 기록으로서 나타나는 수원은 매홀군(買忽郡)이라는 이름으로 5C경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그후 한강유역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번 명칭이 바뀌어 통치되어 오는 동안에도 그 명칭들은 대부분 물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고구려때의 매홀(買忽), 신라 경덕왕때의 수성(水城), 고려 태조때의 수주(水州), 고려 원종때의 수원(水原)등은 모두 '물' 곧 물의 고을이라는 말이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조3년 단행된 한양천도로 인하여 그 다음 해에 양광도에서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그후 지방제도의 개혁에 따라서 다시 수원도호부가 설치되었으며, 세조 때에는 진(鎭)을 설치하여 판관을 두었다.

제22대 정조(正祖)13년(서기 1789년)에 읍치(邑治)를 팔달산(八達山)아래 동쪽으로 옮겼으며 同14년(서기 1790년)에는 성지축조(城址築造)를 상소(上疏)하였다. 정조17년(서기 1793년)에 수원부(水原府)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이 小京(留守京)에 유수 2人を 배치하여 1人은 경기관찰사가 겸하고 1人은 전관유수(專官留守)로 장용외사(壯勇外使), 행관정리사(行官整理使)를 겸무(兼務)토록 하였던 것이다. 정조18년(서기 1794년) 정월(正月)에 화성성역(華城城役)을 착공하여 同20년(서기 1796년) 8월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시가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원성은 東門인 창룡문(蒼龍門), 정조의 위명을 봉안하고 있는 西門인 화서문(華西門), 예술적 웅장미를 자랑하는 통침 남대문인 南門 팔달문(八達門), 北門인 장안문(長安門)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원성의 높이는 3.6m 길이는 5.7km이며 규모는 한양성이나 송도성에 비해 떨어지나 기교면에 있어서는 훨씬 능가하고 있다. 또한 이성은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 성곽으로는 구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배어난 성곽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학문 및 기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후로 수원은 서울의 관문이자 경기지방 통치의 중심지로 역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용주사(龍珠寺)>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 소재로 경부선 병점역(餅店驛)에서 서북으로 약 사분지점인 화산(華山)의 기슭에 있다. 이 곳에 원래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세운 갈양사(葛陽寺)가 있었는데, 고려 광종3년(952)에 누자의 병란으로 소실되었다. 조선 제 22대 정조가 부친인 장헌세자(莊獻世子. 思悼世子)의 능(陵)을 양주(楊州) 배봉산(拜峰山)에서 화산(華山)으로 옮기면서 갈양사지(葛陽寺址)에 능사(陵寺)로서 용주사(龍珠寺)를 세우고(1190), 부친의 명복을 빌게 했다. 이 용주사를 짓는 일은 보경화상(寶鏡和尚)에게 맡기어 졌는데, 정조 16년 9월에 기공해서 동왕 20년에 겨우 완성을 보았으니, 4년의 시일을 요한 대건축이었다. 낙성식 전날 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하여 용주사(龍珠寺)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창사와 동시에 팔로도승원(八路都僧院)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통제하였으며, 보경화상에게는 도총섭(都總攝)의 칭호를 주어 이 절을 구재하게 하였다. 경내에는 석조 7층의 사리탑(舍利塔)과 전정석조 7층탑(前庭石造七層塔), 천보루(天保樓), 대웅보전(大雄寶殿), 십방칠등각(十方七燈閣), 호성전(護聖殿), 독성각(獨聖閣), 명부전(冥府殿) 등이 있다. 그 밖에 사내에 보관되어 있는 사보전품(寺寶珍品)으로는 서방아미타불(西方阿彌陀佛), 동방약사여래(東方藥師如來), 석가여래(釋迦如來)의 불상(佛像)과 대웅전보신후불탱화(大雄殿寶扇後佛幀畫), 칠성각칠성여래사방칠성탱화(七星閣七星如來四方七星幀畫)의 불화(佛畵), 불경판본은중경(佛經板本恩重經), 은중경석판갑동판(恩重經石板及銅板)의 불경각판(佛經刻板), 그리고 범종(梵鐘) 등이 있다. 특히, 범종은 고려 4대의 것으로 드물게 보는 거종(巨鐘)이며, 거종 중실하게 한 국종의 양식을 갖춘 종으로서 국보 제 1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 31분산중의 하나이며, 현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제 2교구 본사인데, 소주말사(末寺)와 암자가 63개에 달한다.

< 화산릉(華山陵. 隆陵, 健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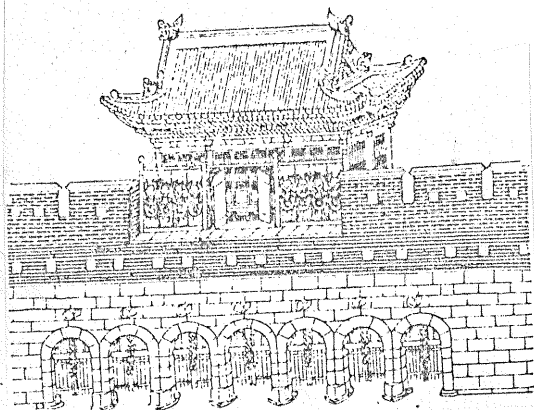
화산림역내(華山林域內)에 홍릉(隆陵)과 건릉(健陵)의 2릉이 있는데, 홍릉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릉이고, 건릉은 정조대왕의 릉이다. 홍릉의 형식은 능묘(陵墓)를 석병풍(石屏風)으로 둘러싸고, 석신(石人), 석마(石馬) 등으로서 외벽(外壁)대로 가별했다. 앞에는 석상(石床), 석등(石燈籠)을 배치했고, 화단에 내려가서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홍살문(紅箭門)이 있다. 제실(齊室), 전묘사(典廟祠), 수복방(守僕房) 등의 건물도 장려를 극(極)하고 있다. 건릉은 홍릉에서 멀지않은 서쪽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고, 능의 형식은 홍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건릉은 석병풍 대신 석간(石欄)이 사용되어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화산림(華山林)은 전국을 통하여 유일한 모범적인 연금림으로서, 정조대왕이 부왕 사도세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능역(陵域)의 미화 계획하에 조림한 것이라 한다.

< 화성(華城)의 축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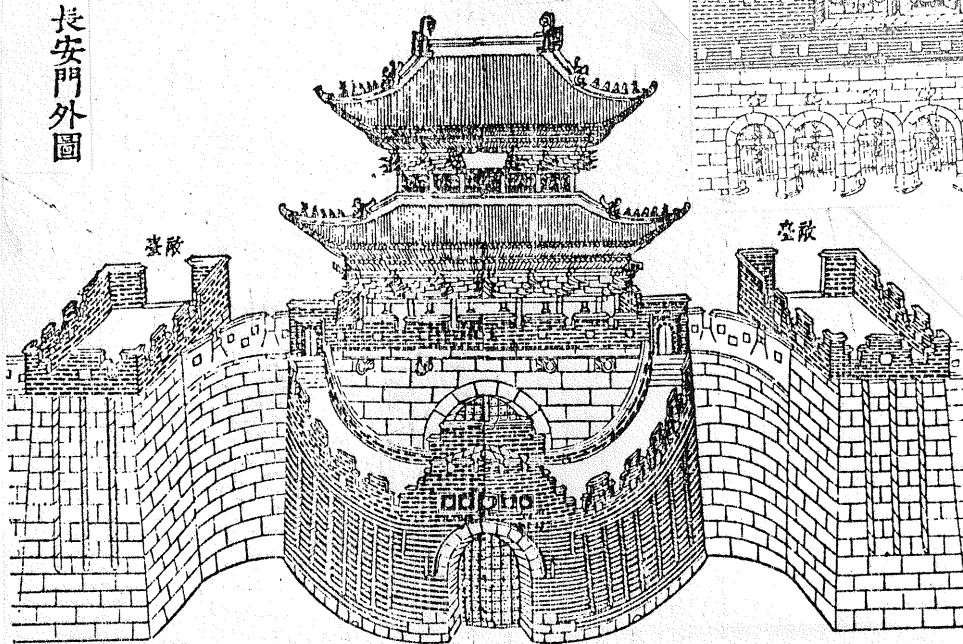
조선 22대 정조 14년(1790)에 姜沆이 성지 축조를 상소함에 따라 이 일은 논의하게 되고 정조 18년(1794) 1월에 화성 성벽을 착공하여 同王 20년(1796)에 준공을 보게 된다. 팔달산(八達山) 아래 쌓은 화성(華城)은 정약옹(丁若鏞)의 城說을 설계 지침으로 하여, 채제공(蔡濟恭)을 중심으로 하여 완성하게 된다. 수원성(水原城)을 축조할 당시의 실학운동이 활발하던 때이라 그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방법이 이용되게 된 것이다. 성의 둘레는 14,600尺 周尺 6尺 이고, 재료의 운반을 위한 수송로가 잘 파듬어져 있고, 여러종류의 차(車)가 있어서 운반엔 문제가 되질 않았고, 재료를 올려 성벽을 쌓는 데는 특별히 기중기가 사용된다. 城이 지탱하기 위해, 城基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 光教川에 小石을 사용하여 기반을 다지고, 성벽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성벽 자체의 무게와 城內의 흙이 성벽을 밖으로 끌어내는 압력이 나 무게의 힘이 城底를 넓지 않게 하고 있다. 城底를 보충하기 위한 배수관리에 유의하여, 겨울에 얼지않게 하기 위해 흙으로 보충하고 있다. 성벽축조에

있어서, 평행으로 쌓으면 가운데가 나오기 때문에 方形의 城石을 써서 독특한 배를림으로 축조하고 있다. 여기에 돌과 벽돌을 사용하였다는 점, 위에 언급한 가늘거나 火砲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公用火器 사용의 방어구조는 다른 성에서는 쓰이지 않던 새로운 것이다. 城의 바위를 연결하는 공격적 방어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수원성의 문에는 門樓, 甕城, 敵臺 등의 시설을 갖추어 다른 성의 門이 가진 약점을 보충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해왔으나 수원성은 그때까지 전래되어온 고유의 전통기술이 혼합되어 중국의 축성법을 떠난 양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중국 대륙의 성이 대개 웅장한 면을 강조하여 정교한 멋이 결여된데 반하여 수원성은 技의 정교함이나 석의 조화 등이 어울려져 조선시대 건축의 획기적 성과로 본다. 축성기술은 그 시대의 문명을 반영하기에 축조된 시대가 다르면 축성 방식이나 성의 규모, 구조, 기능이 다르다. 여기에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 당시 수원성의 工事日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정교가 화성의 성역의 자세한 사항을 간행해 하고 도면과 설계지침을 기록하여 華城城役儀軌를 인출케 하였다.

北水門
門華虹
外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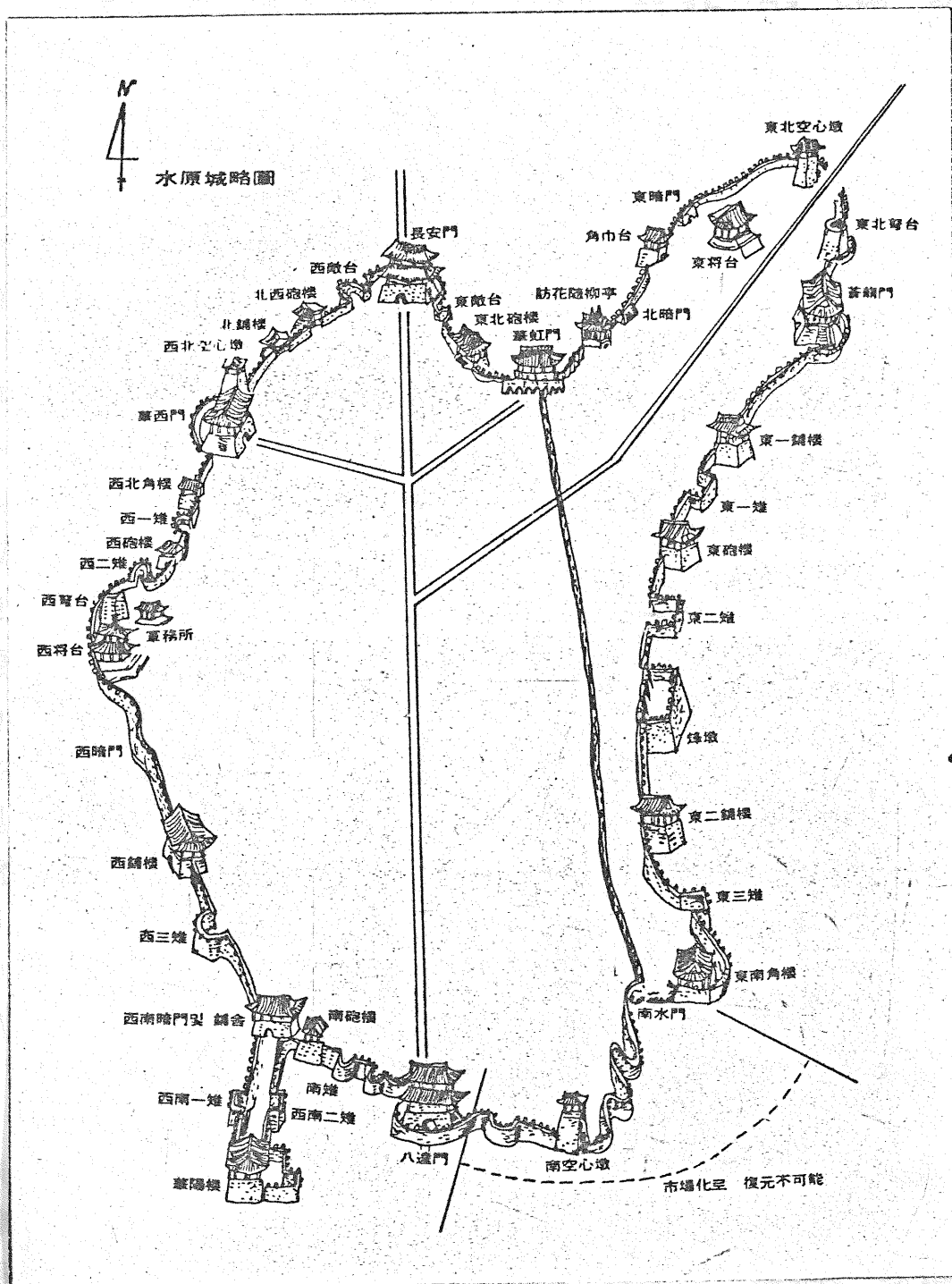


長安門外圖



장안문 바깥그림

〈수원성 약도 (水原城 略圖)〉



< 실학에 대하여 >

실학이 형성되고 발전했던 시기 즉, 17c ~ 19c 초의 조선 후기 사회는 종래의 봉건적 사회 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던 변화의 시기였다. 조선 봉건 사회를 권위 받쳐 주고 있던 신분제가 농업생산력과 상공업의 발달로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농의 개량, 농법의 전환(이앙법과 견종법의 보급 및 확산), 시비법의 도입, 경영규모의 확대 등으로 농업생산력은 양반 이전에 비해 급격히 발달하는데 이는 양반으로 파탄되었던 농업경제를 어느정도 회복시켜 주위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종래의 농업경제를 재탄생하게 만들었다. 즉, 발달한 농업생산력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었던 일부의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몰락하는 농민층도 다수 형성되어 이전까지 주로 지주-전호로 이루어졌던 봉건사회의 구성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리하여 상승한 농민층은 그들의 경제적 실태에 상응하는 정치적 권한·사회적 신분 상승을 바라게 되어 종래의 신분질서를 동요하게 만들었다. 또한, 몰락한 대다수 농민층은 점점 기층되는 봉건적 계층수탈로 더욱 더 빈궁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다수 농민층의 반격화는 그들을 봉건적 신분질서를 포함한 봉건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결국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상승·몰락하는 농민층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어 이들로 하여금 봉건적인 조세·지대수탈에 맞서서 싸우게 함으로써 봉건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많은 사회운동을 야기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면서 신분제의 동요를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 상공업의 발달 곧 유통경제의 확대였다. 이 시기에 시행되었던 대동법·군역제 등은 당시의 유통경제의 확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의 발달을 더욱 저해하였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유통경제의 확대를 담당하는 것이 화폐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봉건체제에 유착한 특혜상인에 대항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 경제적 실력을 배경으로 역시 봉건적 신분질서를 위협했다.

이렇듯 신분질서의 동요 즉 신분제의 붕괴로 대두되는 조선사회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야기된 많은 문제들 - 민란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귀족적 이념을 전제한 양반·지주층·지배층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지하는 당시의 사회 모습을 발생시켰으므로 타당히 폐기되어야 할 지주·전호제 등의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학문을 가지고 있는 터다가 이에 당쟁의 이론적 도구는 전무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여러 문제를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능할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을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국정과 민생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학문으로서의 실학의 대두는 자연스러운 경향이었다. 이러한 배경아래에서 형성된 실학은 중세적인 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문제점을 안착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점을 가지며 서로 다음의 두가지 경향으로 발달하였다.

첫번째 경향은 重農學派로 불려지는데, 이들은 당시 조선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농업문제 특히, 토지노유문제로 보고 이를 시장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했다. 즉, 그들은 당시 대수 존재하고 있던 영세농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民產의 균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토지노유 규모를 제한하여 양반지주·일부 부농 등에 의한 타점병으로 토지를 상실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국가 공동농장을 운영하여 無田農民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나아가서는 농민경영을 잘 한 농민들에게는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의 신분상승 욕구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농민에 밝은 인재를 불려 등용함으로써 국가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익, 정약봉, 서유구 등이 주장한 均田制, 閭田制, 限田制, 屯田制 등은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개혁안이라고 할수 있다.

두번째의 경향은 利用厚生學派 또는 北學派라고 불려진 학자들의 사상이다. 이들은 토지노유 규모의 개선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농학과와는 달리 당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뒤떨어진 산업기술을 개선하고 상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북학자들은 조선사회가 낙후되어 있는것은 本末론적인 직업판에 의해 상품화를 천시하며 산업기술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화이판으로 말미암아 필라하고 있던 淸으로 부터 신기술을 도입하여 재화생산을 늘리고, 상업을 통해 늘어난 재화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서는 淸이외의 국가외도 통상을 하고, 이를 위해 교통수단도 개혁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지원, 박제가, 홍계홍등이 이러한 사상 경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실학 사상이 가장 융성하게 발전했던때는 英·正祖의 치세중이었다. 이들 두임은 탕탕계를 시행함으로써, 관제에서 멀어졌던 실학자들이 활동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조는 귀장각을 설치하여 정약봉,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등 실학자들을 대거 기용하였으며 전국의 지방관·농지식인에게 농업문제에 대한 상소를 명하는등, 당시의 문제상황과 실학자들의 개혁방안에 어느정도 관심과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正祖의 死後, 老論派와 倭學派에 의해 많은 진보적인 실학자가 천주교로 귀종한 박해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安東金氏 세력이 봉건반동의 정책을 취하여 실학자들의 개혁의 모색은 점점 더 국가정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실학자들의 개혁 방안이 당시의 피지배층이었던 농민층의 이해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봉건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양반지주층·지배층에게는 받아들여질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실학은 이로 인해, 국제적이고 내반전적인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으로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실학사상은 근대 개화사상의 원류가 되었다는 점에서 - 한 예를 들자면 북학파의 지주적 개혁론 - 동맹, 군소의 개혁을 지향한 갑오농민전쟁에 사상적 바탕을 주었다는 점에서 실학사상 자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國譯華城城役儀軌》上, 水原市

〈水原城廓築城休行에 관한 硏究〉, 1976年

단국 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학사 전공

《文化遺蹟總覽》上권, 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이것이 韓國이다》 정도현, 삼형출판사.

《한국의 발전 - 경기도》 백두원, 나무

김 용섭, 〈조선 후기 농민문제와 실학〉 상·B1 45. (1977. 가을)

김 용섭, 〈다산과 풍속의 양면론〉 한국사 연감 11.

강 재언, 〈실학사상의 형성과 전개〉 ≪봉건사회 해체기의 사회 경제구조〉

박 종근, 〈다산 정약용의 토지 개혁사상의 고찰〉 ≪봉건 사회 해체기의 사회 경제 구조〉